

##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장

학력사항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치사회 학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 석사

주요경력

2006 ~ 2010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2010 ~ 2014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2014. 07 ~ 민선 6기 당진시 2대 시장 취임

## 초록

### 당진형 청년정책,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의 도전이 시작되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현재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고착화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일자리, 주거, 보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이 미흡하여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88만원 세대', 'N포 세대'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들이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새로 조명되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의 현주소를 타개하려면 지금이 기성세대가 살아온 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시선에서 청년문제를 직접 실험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당진시는 시정의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당진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화·자동화 등 산업고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기업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다다랐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무직 일자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인 당진은 청년들에게 장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급인재가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적자원 고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IT 등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인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벤처산업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창의적인 유망 아이템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문제다.

당진시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미처 하지 못했던 청년정책, 당진은 한다”라는 철학과 정신으로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문제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복잡·다양한 인과관계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는 물론 사회참여, 주거, 보육, 문화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당진시는 설자리(제도·기반·참여), 일자리(취·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커뮤니티) 4대 분야 총 31개의 청년 특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분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설자리’는 “청년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넓혀갑니다”를 모토로 한다. 당진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또 충남 최초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전국 최대 청년복합지원센터인 당진청년센터를 설치하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는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만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가 모토다. 맞춤형 청년인턴제, 청년취업 사관학교, 취업준비생 전용 도서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특례자금 조성, 청년창업농 육성 조례, 세계 최초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살자리’는 “청년의 주거환경을 살피고 맞벌이 청년가정의 양육 고충을 덜어드립니다”를 모토로 한다. 주거환경 위기에 놓인 취업준비생 지원, 아동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방과후 마을학교, 아이돌봄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놀자리’는 “청년 커뮤니티와 문화 활성화로 젊음과 열정의 당진을 만듭니다”가 모토다.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퇴근 후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해나루 달빛 학습촌, 당진시 청년문화제, 청년 영화학교,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당진형 청년정책은 어찌 보면 장황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과 같이 대표사업을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머는 곳이 너무 많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청년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문제는 종합처방약으로 치료해야 하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약이 돼야 한다. 이것이 당진형 청년정책의 가치다.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 실험과 성공 및 실패 사례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자원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공간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와의 관계망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청년들의 그저 좋은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본 토론에서는 당진형 청년정책의 중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직 단념을 방지하는 한편 전공 관련 역량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청년인턴제' △청년 고용시장의 비정규직화 고착화로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용불안과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생활임금제'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추진배경

### ▣ 청년이란?

- 청년의 나이를 OECD,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자체 조례마다 제각기 규정(최소 15세, 최대 49세)



고용시장 진입나이, 고령화 추세, 도농복합도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진형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2. 추진체계 (비전 및 추진방향)

###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

청년문제는 보편적 사회문제임  
일자리, 보육, 문화 등을 아울러 추진

청년이 청년사업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사회적 경제 연계)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통해 철저히 수요자인 청년 중심의 정책 추진

## 1. 추진배경

### ▣ 당진형 청년정책 “왜 필요한가?”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장기적인 경기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역대 최악의 상황

- 청년실업자 43만명(9.8%) \* 전체 실업자 101만명 중 43%
- 구직단념 50만명, 잠재적 실업 40만명 포함 청년실업자 133만명

자녀 양육 부담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  
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는 상황

- 2016년 말 출산율 1.17명(OECD 34개국 중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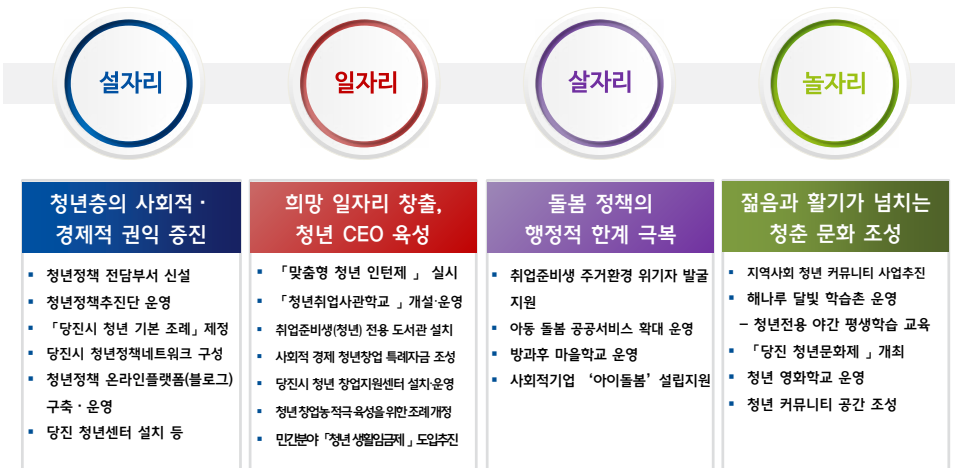
## 2. 추진체계 (추진전략)

### ▣ 설자리(제도,소통) 일자리(취업,창업), 살자리(주거,양육) 놀자리(문화,축제)로 체계적 추진



## 2. 추진체계 (추진전략)

■ 수요자 청년 중심, 4대분야 총체적인 사업 추진



##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직업경험제공 및 청년창업 지원 (맞춤형 청년 인턴제,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  
희망 일자리 창출, 청년 CEO 육성

### 추진사업

#### ① 「맞춤형 청년 인턴제」 실시

- 목 적 : 구직단념 방지, 전공 관련 역량 제고, 실질적인 직업 경험 제공
- 대 상 :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근무기간 : 1년(연장 없음) ※경력형성으로 민간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이 목적
- 임 금 : 생활임금제 도입(시간당 7,703원 → 월 188만원)
  -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한 체감형 소득 보전 청년일자리 제공
- 내 용 : 전공(역량) 등 고려 경력형성이 가능한 市 산하기관 근무지 배치

## 일 자리

Youth Dangjin

사회혁신을 꿈꾸는,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만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 추진사업

#### ① 「청년취업사관학교」 개설·운영

- 취업, 창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진행(3개 과정 41명)
  - 6. 5~8. 4/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창업스쿨, 취업역량강화 교육
- 사무직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산회계, 문서관리, 인사노무 등의 실무 교육 및 기업인사 담당자 멘토링 등

#### ② 취업준비생(청년) 전용 도서관 설치 (11월 중)

-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 위주 운영 (도서관 휴일인 월요일 제외 주 1회 휴일)
- 공무원 수험서, 자격증 관련 도서 등 취업준비 맞춤 도서서비스 제공



##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 추진사업

- ①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특례자금 조성
  -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특례자금 출연 동의안 승인(2017. 5월)
  - 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해 당진시 출연 운영자금 2억4천만원 지원
- ② 「당진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 소 : 당진 청년센터 내(2층) / 296㎡(교육실 + 코워킹공간)
  - 사업비 : 연 2억원 / 운영기관: 창업 전문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기 능 : 발굴~육성~사업화~사후관리까지 창업 전주기 지원



# 감사합니다

##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 추진사업

- ① 청년 창업농 적극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우리시 자체 공모사업 추진 시 청년농부 우대 (총점의 10% 이내 특별가점)
- ②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고착화, 최저임금 비현실화로 청년 근로빈곤층 증가
  - 대 상 자 : 소상공인 사업장 취약계층 청년(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등)
    - 재정의 수용성, 사회적 합의성, 법적기준 명확성 고려 단계적 확대추진
  - 지원내용 : 회사 임금과 생활임금(시간당 7,703원)간의 차액 시비 보전
  - 사 업 비 : 연간 1,549백만원(소상공인 사업장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 604명)